

나눔 2001년 선포 - 우리 시대의 기부자를 찾습니다.

나눔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절대적인 아주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그렇게 가슴을 짓눌렀던 답답함과 서러움이 가을날 맑은 하늘의 기러기 소리처럼 처량하지만 아름다운 여운처럼 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겨움과 고마움의 감정으로 남게 되지요.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은 소리없는 함성으로 모두를 고무시키며 하나로 묶어 줍니다.

어려움을 나누면 십시일반이라는 옛말처럼 나는 조금 밖에 한 것이 없는데도 어느 누군가는 충만함으로 우리와 똑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2001년 선포' 는 이 나눔을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함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자고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정도로 아는' 나눔이 실은 소박하고 질박했던 우리 선조들이 생활화 하였던 삶의 한 형태였습니다.

집안의 큰 일을 치루고 나면 동네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었고, 나라에 재해가 있어 곤궁한 사람들이 늘면 그 고장의 부호들은 공간을 열어 자신의 것을 자기고장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길가는 나그네에게 기꺼이 잠자리를 나누어 주었고, 농사일에 품앗이는 물론 장정이 없어 힘에 부쳐하는 이들에게는 노동력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을 나누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인당 기부액이 천원을 밑돌고 있으며 서로에게 나누는 일이 자기자신의 일보다 항상 뒷전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눌 힘이 없다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합니다

나눔이란 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소중한 것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구멍을 내고

마침내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저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눔의 힘은 세상을 행복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웠던 지난날의 미덕을 되찾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동체의 좋은 관습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여성기금과 아름다운재단은 '당신과 나누는 아름다운 콘서트 나눔 2001' 을 개최합니다.

예전의 조상들의 슬기를 계승하고, 건강한 미래사회 건설을 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우리 한국여성기금을 비롯한 순수 민간이 만든 공익재단이 많이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대 형성과 현실적인 참여의 방법 등 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기금과 아름다운재단은 효과적인 기부문화확산을 위해 노력과 지혜와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시대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번 콘서트의 출연진과 스태프들은 그들의 재능을 기부하고, 관객들은 입장료 대신 기부금을 내고 관람하며 많은 기업과 언론, 방송사는 이를 위해 홍보 및 캠페인을, 자원봉사자들은 그들의 시간과 힘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희망하며
오늘을 시점으로 2001년을 기부문화 확산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눔의 힘에,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하려 합니다.